

# 실천과 연대, 국제개발에서 봉사의 가치를 알리다

- 이름 : 정은영
- 근무기구 및 부서 : 유엔자원봉사단 스리랑카 사무소(UNV Sri Lanka)
- 직위/직급 : 커뮤니케이션 · 아웃리치 전문가
- 지원경로 : UNV
- 근무기간 : 2020.06.16. - 2022.06.15.

## 개발에 지속가능한 힘을 더하는 커뮤니케이션

2013년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에서 공보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참석한 난민 관련 심포지엄에서 한 난민분의 증언이 마음을 울렸다. “난민법이 제정되더라도 대중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난민들은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제도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무관심,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난민들이 여전히 체류 자격 취득 과정, 취업, 일상생활 등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나는 이 담화를 통해 내가 맡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더욱 자각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다양한 전문 분야의 노력들은 문제를 당면한 당사자,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동력을 얻는 것이다.

이후 수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 관련 경력을 쌓고 개발과 커뮤니케이션 석사를 마친 나는 외교부가 지원하는 UNV 전문봉사단 8기에 지원하게 되었다. 여러 직위 중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기관 홍보 활동을 담당하고 봉사의 가치를 알리는 UNV(유엔자원봉사단) 스리랑카 사무소의 공고가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다. 운 좋게도 1순위로 지원한 스리랑카 사무소에 합격하여 2년간 커뮤니케이션과 아웃리치 전문가(Communications and Outreach Specialist)로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 7개월의 원격근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코로나 팬데믹의 초창기인 2020년 6월에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현지 사무소에 바로 파견될 수 없었다. 금방 나올 줄 알았던 비자는 6개월 이후에 발급이 되어 무려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원격근무를 하게 되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업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야 하고 콘텐츠 제작, 행사 프로모션 등 즉각적 소통과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원격근무로 업무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유엔자원봉사단 스리랑카 사무소의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서 업무 실행에 있어 물리적 한계에 자주 부딪히게 되어 답답한 마음도 컸지만 나는 원격으로 가능한 일에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다. 타깃 지향적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셜미디어에 꾸준히 배포하려 노력했다. 자국민이나 자국 관련 정보를 담은 콘텐츠의 반응이 좋은 것을 포착하여 국제행사 소식을 알릴 때에는 현지 시각에 맞춘 시간표를 별도로 제작하기도 하고 팔로워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층들을 위해 인스타그램 테이크 오버(Instagram Take-over; 인플루언서나 특정 인물에게 기관의 공식 계정을 일시적으로 일임해 포스팅하는 이벤트) 등 생동감 있고 친근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소셜미디어 채널 모두 팔로워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인스타그램은 이 기간동안 3배 이상으로 팔로워 수가 증가하였다.

물리적 한계로 진행이 어려웠던 일들은 사무실 동료들의 도움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 동료들은 본인의 업무들로 바쁜 와중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면 주저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서주었다. 예를 들어 영상을 제작할 경우 서면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 등 원격으로 가능한 일을 완료하여 사무실에 넘겨주면 동료들이 촬영장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어 완료된 영상파일을 나에게 다시 넘겨주었다. 그렇게 유엔자원봉사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의 유엔의 날 행사와 유엔자원봉사단 스리랑카 사무소의 세계 자원봉사의 날(International Volunteer Day) 행사에 필요한 영상들을 제작하여 선보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업무를 진행하며 동료애나 팀워크에는 물리적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다.

2021년 1월 말, 드디어 스리랑카 땅에 발을 내딛고 2주간의 자가격리 끝에 사무실에 첫 출근하였을 때 나는 지난 7개월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실제로는 처음 와본 나라이고 동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도 처음이었지만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동안에 기관과 업무에 대해 배울 시간이 충분했기에 출근과 동시에 기획해온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이후 2년의 임기를 완료하기까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관리, 행사 홍보, 연설문, 보도자료 작성 등 기관의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며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영상, 기사 등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사무소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엔 자원봉사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와 글로벌 플랫폼에 여러 차례 선보이는 뿌듯한 결과도 내었다. 무엇보다 유엔자원봉사단 스리랑카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서 다른 유엔기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 유엔자원봉사단 지역사무소와 본사, 봉사자들과 협업할 기회가 많아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봉사, 행함의 미학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봉사활동의 영향력은 전 사회, 전 분야,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아우르며 사회적 연대감 형성, 시민역량 강화, 개발 전략의 현지화 등의 역할을 한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이러한 봉사의 가치와 정신을 알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헌신해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는 봉사자들의 사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은 매우 보람된 일이었다. 특히 유엔봉사단원들의 이야기를 조사하며 그들이 속한 유엔기구들의 미션과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기후변화 대응과 회복성 증대](#), [유니세프\(UNICEF\)의 백신의 안전한 보급을 위한 시설 강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해양범죄와 불법 밀거래 대응](#) 등이 그 예이다.

스리랑카에서 봉사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자신의 노동을 기꺼이 나누는 행위, 즉 봉사활동이 사회문화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자양분을 토대로 유엔자원봉사단 스리랑카 사무소는 정부의 봉사에 관한 국가정

책과 봉사 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유엔자원봉사단 프로그램 외에도 자체적인 봉사 프로그램(V-Force) 시행, 봉사 공로 시상식(V-Awards) 등 국가의 봉사 활동 분야의 발전을 열정과 자부심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내가 근무한 2년 동안 스리랑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팬데믹과 정치 경제적 불안정은 가장 먼저 어려움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잦은 정전과 시위, 통행금지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매년 12월 5일, 세계 자원봉사의 날에 유엔자원봉사단은 사회 각계각층의 봉사활동을 조명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소리 없는 영웅들인 봉사자 및 단체 활동을 소개하였다. 2021년은 유엔자원봉사단 50주년을 맞이하여 스리랑카 사무소는 정부 기관, 교육기관, 유엔기구, 민간, 언론, 친선대사, 시민단체와 개인 봉사자 등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이 행사의 홍보를 담당하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봉사라는 이름 아래 더욱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어떻게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성취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더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는 여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다.

유엔자원봉사단의 슬로건은 봉사자들을 ‘행동으로 영감을 주는 사람 (inspiration in action)’ 이라고 말한다. 봉사자들은 다양한 의제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실천을 통해 긴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킨다. 유엔자원봉사단에서 봉사의 가치를 알리는 UNV 봉사단원으로서, 특히 풍성한 봉사 문화를 향유하는 스리랑카와 함께한 2년의 시간은 나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고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었으리라는 자긍심을 주었다.

덧붙여 한국은 유엔자원봉사단에 매년 가장 많은 수의 봉사단원의 파견을 지원하는 국가이다. 한국인으로서 나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고 유엔자원봉사단에서 활동하는 내내 많은 한국인들이 다양한

국가와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세계 곳곳에서 ‘행동으로 영감을 주는’ 유엔봉사단원들을 비롯한 봉사자들이 많아 질수록 한국에 귀중한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세계 자원봉사의 날이자 유엔자원봉사단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스리랑카 사무소 동료들과 함께. (UNV Sri Lanka, 2021)